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책들 중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대순으로 배열하면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시대를 같이하는 구약 예언서는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 느헤미야 이후, 그리고 구약 39권의 성경으로 구분하게 되면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약 400여 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서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예전 세대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경고하신 수 많은 기회들을 저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고 35년을 나라 없는 백성의 슬픔과 비극을 경험하며 살아야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시편 137편에는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지만 바벨론 유수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고 살면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건축이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벽을 완공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장인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 이미 암몬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한 때는 자신의 형제 제사장들을 이끌어 성벽의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의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여 건축하였던 대제사장 엘리아살이 성벽의 건축을 방해하는데 앞장섰던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엘리아살이 도비야에게 준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있을 때에 엘리아살이 도비야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이 성전의 기물들을 두는 방을 도비야를 위해 내어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전 뜰에 이러한 악한 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방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십일조를 들여 놓을 창고가 바로 오늘 도비야가 썼던 방과 같은 성전의 창고입니다. 그렇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성전의 창고가 도비야의 방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비야가 쓰던 방이 그러한 성전의 창고 중에 하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의 창고는 말이 창고이지 사실상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물을 두는 거룩한 성전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도비야를 위해 내어준 것입니다. 과거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 방을 제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와 같은 성전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심히 근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고 사람이 살게 되니 주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방 상인들은 이날에 장사하여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지키는 시늉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 속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장차 주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되는지 또는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섞여 사는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자녀들을 낳고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다고 솔로몬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없이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우리들도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